

## 옥중 서신 (獄中 書信)

유형준 교수 / 한강성심병원 당뇨병클리닉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는 편지가 있다. 가슴 저린 순간의 사연으로 감옥에 갇힌 채 당뇨병으로 인한 육신과 정신의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튼튼해지는 변화를 담고 있는 편지다. 소망이 새로워지는 새해 첫머리에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되읽으며, 당뇨병에 대한 서신 왕래를 통해 점차 뚜렷하게 강건해져가는 옥중 당뇨병환자의 심신을 읽을 수 있다.

- 기다림에 지친 가운데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징역 1년 6월을 마치고 보호감호 7년을 복역하고자 지난 달 이곳으로 옮겨 왔기에 선생님의 편지를 며칠 전에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곳에서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혈당수치는 216~240입니다. 지금도 다리통증은 계속되고 있으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제일 우선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 병의 종착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증'이란 진단이 나왔고 오른쪽 눈은 '만성 결막염'까지 있다고 하는데 당뇨병성 망막증이란 병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이 어둡어졌고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 혹시 어려다가 실명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르침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맨 처음 서신은 자신의 소개와 함께 당뇨병에 관한 상담 회신에 응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역시 격식 바른 것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이 편지에는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크기와 깊이가 크고 깊었다. 상세한 당뇨병 진실과 든든한 격려로 답하였다. 그 후 수개월 지나 받은 편지에는 상당히 안정된 심정으로 자신의 발 상황을 꼼꼼히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 봄이 오는가 싶더니만 벌써 날씨는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박사님께 편지를 다시 드리게 된 것은 또다시 당뇨에 관해 말씀을 듣고자 소원해서입니다. 3개월쯤 전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지름이 1.5cm정도 되는 물집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집이 말라가며 없어졌다가 양쪽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다시 생기더니 왼쪽은 엄지발가락이 2배가 될 정도로 커다란 물집이 생겼습니다.(잠자리에 생겼습니다) 저는 구멍을 내어 물을 뽑아주며 매일 소독약을 바르며 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정도 지나 가로 3cm정도 세로1cm정도의 상처에 딱지가 생겨 진물과 피가 배어 나오다가 또다시 딱지 전체가 물러지며 피가 방울방울 나오다가 딱지가 생기다 그런 증상이 30일 정도 되었고 발톱주변의 피부색깔이 붉은빛과 검붉은 색이 있고 발가락

주변에 피부가 허영게 되면서 마치 굳은살처럼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슐린을 매일 맞고 있으며 혈당수치는 현재 185정도입니다.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수형생활과 여러 질병에 고생하는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

곧 답장을 보냈다. 건강해지는 글에서 변화되어 가는 당뇨병 관리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마냥 고마워.

- 000 선생에게, 봄과 여름이 함께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내신 글은 자세히 보았습니다. 직접 살필 수 없지만 편지 내용으로 보아 당뇨병 발로 여겨지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물리적 안정과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 바탕으로 한 드레싱입니다. 물리

적 안정이란 이상이 있는 발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도 가능한 제한합니다. 동시에 적합하고 잘 듣는 항생제 사용이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드레싱은 대단히 무균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물론 물집은 깨끗한 과정을 거쳐 터뜨리는 것이 이롭습니다. 아울러 혈당은 조금 더 조절되어야 하겠습니다. 180은 다소 높습니다. 특히 염증 등이 있을 때엔 인슐린 요구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더욱 건안 하시기를 주님께 빕니다. -

요즈음도 때맞춰 외래 진료실에 들어서는 편지 주인공의 건강한 삶을 대하는 기쁨. 옥중에서 보내온 서신을 되읽으며, 옥중 변화가 전해주던 따스한 고마움. 올해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든, 또한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모든 당뇨병환자의 보다 진정한 조력자가 되고자 기도한다. <img alt="pen nib icon" data-bbox="845 485 865 500"/>

## 함께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기부를 받습니다.

### □ 기부안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공익성 기부금 손비 인정단체로, 기부해 주시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 송금계좌 : 우리은행 195-138439-13-001(예금주: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문의전화 : 02-771-8542

-기부금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관련법규 : 본 협회에 기부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3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인단체 <img alt="Korea Diabetes Association Logo" data-bbox="368 855 395 871"/>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www.dangnyo.or.kr](http://www.dangnyo.or.kr)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모토로 우리나라 400만 당뇨인의 건강,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